

우리는 왜 ESG를 해야 하는가?

적십자 이야기

흙공 던지고, 꽃 심고
놀이처럼 즐거운 ESG

RC Report

“싸아울”, “다크유”
언어는 달라도 희망은 하나

RC 캠페인

어디든 달려갑니다
트럭은 ‘안전’을 실고



온라인 소식지 보기

2024

여름 Summer

대한적십자사 소식지

vol.578

우리에겐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 열정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이상기후가 더이상 이상하지 않은 요즘,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힘든 계절이기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히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매년 5월 8일은 ‘세계적십자의 날’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주창했던 적십자운동의 창시자 앙리 뒤낭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적십자의 숭고한 정신이 세상을 채우고 있지만, 인도주의가 닿아야 할 곳은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대한적십자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를 다녀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부상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전달하고 이들의 불안한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안타깝게도 160여 년 전, 앙리 뒤낭이 목격한 솔페리노 전투의 참혹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폭격으로 완전히 주저앉은 건물과 불에 타서 고철처럼 구겨진 차량들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 규모는 정확한 집계조차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웠던 도시가 어쩌다 이렇게 폐허로 변한 것인지, 말할 수 없이 참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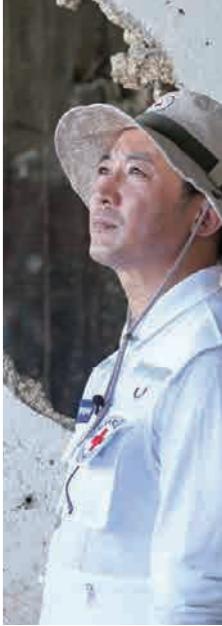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한 곳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닙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끊이질 않는 가자 지구, 13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등 세계 곳곳이 폼살을 앓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사회적 재난은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가중합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전방위적인 위기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바로 인도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분쟁이 고조된 아래,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직원과 봉사자 15명이 목숨을 잊었고 13명은 실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해 트럭으로 식량을 운송해 전달하는 인도적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역시 대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도주의 가치와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형 재난과 감염병 확산, 복지사각지대의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달려가 차별화된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했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혈액 수급 안정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여름을 꽉 채우는 열기보다 뜨거운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여러분의 열정일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의 위기 현장에서 인도적 활동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 모든 적십자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일에 더 많이 동참하고, 행동하는 실천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적십자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철수



CONTENTS

- 04 미리보기
우리가 바라는 지속가능한 세상

- 06 테마 돋보기
우리는 왜 ESG를 해야 하는가?

- 08 적십자 이야기
흙공 던지고, 꽃 심고
놀이처럼 즐거운 ESG

- 12 당신의 응원으로 따뜻해질 오늘
우리 딸, 아빠가 꼭 살릴 거야

- 14 RC Report
“싸아을”, “다크유”
언어는 달라도 희망은 하나

- 18 후원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Saving Lives,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2023년 혈액·의료 사업

- 20 RC 캠페인
어디든 달려갑니다
트럭은 ‘안전’을 실고

- 22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Story
나누니 촘촘로 좋수다
내내로전자출판 곽경부
디자인늘 강영의 대표

- 24 함께하는 RC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 28 김경일의 마음 처방전
마음 균력을 단단하게 키우는 법

- 30 RedCross News
지역별 적십자 소식

- 40 나눔이 희망입니다
나눔을 함께하는 분들

- 43 빨간우체통
독자 의견 및 편집실 이야기

RedCross media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우리가 바라는 지속가능한 세상

환경을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야생화를 심고, 곳곳의 쓰레기를 주워가며 미생물을 품은 흙공도 던져 봅니다.
기후변화가 불러온 재난과 끝을 모르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현장엔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우리의 이름은 적십자사까요. 건강한 지구를 누리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세상.
대한적십자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왜 ESG를 해야 하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왜 국가와 기업이 나서서 ESG를 외치고 있는 걸까요? ESG가 무엇인지,

ESG 트렌드와 기업의 활용 방법을 살펴봅니다. 글 | 신지현 <한 권으로 끝내는 ESG 수업> 저자

ESG는 기업의 생존 문제와 직결

지난 4월 9일, 한국ESG기준원이 올해 ESG 평가 항목에 대한 변동사항을 회원기업에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주요 변경사항 중 눈에 띠는 부분은 ‘지역사회 상생 활동 관련 성과 기준의 고도화’였습니다. 사회 부문(S)에 있어 이전에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기부금액, 장학 수혜 대상 인원만 보고하면 평가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공개하도록 요구받게 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기업 ESG 담당자들의 불만이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해야 하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어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에 투자할 때, 재무적 지표만을 보고 투자의사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ESG 성과도 투자 및 평가, 거래 지표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 결과를 입찰 조건으로 추가한 표준계약서를 새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ESG 관련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임직원, 고객, 정부, 협력사, 지역사회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역시 기업이 ESG를 잘 수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과 기업의 파트너로서 ESG를 더욱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돋는 조력자 역할이 강화됩니다. 임직원이 기업의 인사정책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환경단체가 공룡기업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고, 국제인권단체가 해외 공장의 아동 및 강제노동의 실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업의 ESG 실천을 감시하고 돋는 강력한 외부요인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사회적 가치 측정해 친환경·사회적 기업 증명해야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ESG기준원의 ESG 평가 항목 변경 때문에 기업들은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영역의 비영리 섹터에 ‘정량적인 사회적 가치 측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차 연도 측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적 가치가 지속적인 임팩트를 창출하는지 비교 분석할 것입니다.

이런 기업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더 이상 ‘OO명 기업방문 체험 참여’, ‘OO 가구 김장나눔’과 같은 일회성 활동 및 일차원적인 성과집계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네트워크 통신회사 시스코(CISCO)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 후 교육을 제공받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여 수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여기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대한적십자사와 SK텔레콤이 만든 ‘레드커넥트’라는 헌혈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쓰는 집단과 안 쓰는 집단을 비교해 봤을 때, 앱 사용 시 재헌혈률이 22.4% 정도 올라갔고, 이를 통해 ‘레드커넥트’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혹은 경제적 가치를 ‘레드커넥트 실멤버 × 헌혈 1건의 비용 × 재헌혈률(증가율)’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ESG는 투자, 고객사와의 거래, 규제와 관련된 기업의 비즈니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단일 인물이 임직원, 고객, 환경단체 회원 등 다양한 페르소나(다중적 자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을 비롯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ESG가 기업과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살펴서 이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흙공 던지고, 꽃 심고 놀이처럼 즐거운 ESG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대한적십자는 환경영향체계를 수립하고 헌혈자·봉사원·기부자가 함께하는

친환경 문화를 조성하는 등 ESG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지구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적십자의 ESG 활동을 소개합니다.



하천을 깨끗하게, 맑게! **'EM 흙공'** 던지자

01

도심 하천은 시민의 쉴 곳이자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각종 생활 쓰레기를 비롯하여, 배출 지점을 특정할 수 없는 비점오염원(오염토, 농지의 잔류농약 등 주로 빗물과 함께 퍼져 내려가는 오염원)의 유입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면서 하천이 본래의 색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서울 시내 하천 가운데 오염이 심한 안양천을 찾아 '생명을 살리는 EM 흙공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EM(Effective Microorganism) 흙공은 유용한 미생물을 발효액과 황토로 빚어 약 2주간 발효시킨 공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흙공을 하천에 던지면 흙 속에 있던 미생물들이 서서히 녹으면서 수질이 정화되고, 악취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날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지역 적십자봉사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임직원 및 청솔유치원생 등 70여 명은 서울 구로구 안양천 고척교에 모여 EM 흙공 1,000개를 던지고, 하천 주변을 걸으며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봉사회 금천지구협의회 김영화, 나현자 봉사원은 "EM 흙공으로 하천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다는 게 인상 깊었다"라며 "누구나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이니만큼 더욱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지사 서부봉사관 박소영 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하천의 수질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환경 의식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깨끗한 안양천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보호구역에 피어난 ‘희망의 꽃’

02

지난 4월 29일, 국립춘천숲체원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특별한식목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남성현 산림청장, 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적십자봉사원, 기부자 등 250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인데요. 과거 이곳은 군사시설로 이용됐으나 군부대 철수 후 방치되면서 산림 훼손과 토지 황폐화가 심각해진 지역입니다. 생태 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한 대한적십자사는 2022년부터 ‘푸른 숲을 부탁해’ 캠페인을 진행하여 약 2억 원의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이 성금으로 지난해에는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경북 울진 산불 피해지역 산림생태를 복원했고, 이번에 보호구역에 두 번째 기부의 숲 조성에 나선 것입니다.

개회식에서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은 “생태 복원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인 만큼 그 중요성을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부자를 대표하여 (주)퍼시스홀딩스, 우리은행, 유진그룹, 대상그룹, 한국지멘스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적십자봉사원과 미래세대를 대표해 청소년적십자(RCY) 단원도 함께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들은 약 1ha 면적에 한반도 자생식물인 개느릅, 텔개화나무, 쉬땅나무 등 대표 밀원(꿀샘식물) 수종 2,000주와 돌단풍, 앵초 등 토종야생화 6,000본을 심었는데요. 특히 밀원수와 토종야생화를 심은 이유는 꿀벌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이 사라지면 작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는 식량 안보 위기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작은 나무 한 그루지만 머지않아 자생식물이 꽃을 피우고 꿀벌이 찾아오는 건강한 숲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해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적십자사의 ESG 활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부의 숲
영상으로 만나기

야생화 심기로 보호구역을 푸르게

MINI INTERVIEW

강원지사 RCY 남혜성 단원
(서상초등학교 5학년)



보호구역에 야생화를 심는다
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심은
야생화는 돌단풍인데요. 돌단풍이 아름답고 건
강하게 잘 자라서 공기도 맑아지고, 꿀벌들도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디아만티스타
신자용 대표



실험실에서 양식한 친환경 다이
아몬드와 재활용 금속을 사용하는 주얼리 제조
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환경에 대한 관
심이 많았는데, 대한적십자사에서 야생화 심기
를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쉽고, 작은 힘이 모아 큰
힘이 되잖아요. 소액의 나눔이라도 큰 보탬이
되고, 현장에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한 일이
니 최대한 많은 분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생태복원실 양종철 실장



야생화를 심는 것은 건강한 생태
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산림이 훼
손되면 자연 식물이 함께 감소하면서 꿀벌, 나
비 등의 서식할 수 있는 공간도 사라지기 때문
입니다. 아직은 야생화가 작은 식물체지만 건
강한 숲이 되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겁니
다. 생태 복원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
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며, 꾸준한 관심을 부
탁드립니다.

우리 딸, 아빠가 꼭 살릴 거야

소아성 뇌사 판정을 받고도 기적처럼 살아난 하린이. 이제 하린이는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희귀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제때 치료만 받으면 반드시 나을 수 있는데 비싼 병원비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아빠의 심정은 어떨까요? 경련과 발작으로 오늘도 괴로워하고 있는 하린이를 보며 아빠는 다짐합니다.

우리 딸, 아빠가 꼭 살릴 거야. (본 사연의 대상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 보내주신 후원금은 하린이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에 우선 사용되며, 생계, 주거 등에 지원됩니다.
이후 모인 후원금은 하린이와 같이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됩니다.

분유가 없어 물로 채우는 젖병

아빠를 향해 웃으며 기어 오거나, 누워서 옹알이하는 모습이 여느 또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두 살, 하린이는 뇌전증과 뇌병변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눈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터순 증후군까지 판정받았습니다. 경련과 발작은 예고 없이 찾아와 하린이를 괴롭힙니다.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이 시간을 작고 여린 몸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하린이는 아직 분유를 먹습니다. 이마저도 소화하는 게 어려워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먹입니다. 한 통밖에 남지 않은 분유가 줄어들수록 아빠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분유는 하린이가 유일하게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분유가 부족해 젖병을 물로 채울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분유조차도 배불리 먹게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살릴 수 있다는 아빠의 희망

하린이에게 분유 한 스푼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아끼고 또 아껴 보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에어컨 수리 기사였던 하린이 아빠가 몇 년 전, 5층 높이에서 추락사고를 당

하면서 생계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생계 수단을 잊은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현장에 나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는 커녕 가족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일당에 아빠의 한숨은 깊어질 뿐입니다.

아직 어린 하린이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검사와 약 처방만으로도 매월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겼던 하린이가 더 큰 장애를 입지 않으려면 뇌 손상을 막는 치료와 재활 및 발달 치료도 절실하지만 이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입원 치료를 권고하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아빠는 고개를 떨구고 하린이와 집으로 향합니다.

“일터에서 사고를 당하고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저를 살게 한 건 하린이였습니다. 그런 하린이를 태어날 때부터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딸 하린이, 얼른 낫자.
이제는 아빠가 널 살릴게.”

벼랑 끝에 몰린 하린이 가족에게 희망이 필요합니다. 하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적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

후원 참여 방법

계좌 후원 우리은행 **1005-002-719129**
(예금주: 대한적십자사, 입금자명: 성명+하린이)

홈페이지 후원 www.redcross.or.kr 접속 후 참여

후원 문의 **1577-8179** (유료, 대한적십자사 후원 콜센터)



하린이 후원하기

후원 그 후

2024 <RedCross> 봄호에 실린 ‘혜진아, 엄마가 하늘나라에서도 지켜줄게’를 기억하시나요? 혜진이를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9,887만 9,333원이 모아졌고, 혜진이의 치료비와 시급한 생계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혜진이에게 희망을 전달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후원금 약 7,887만 원은 혜진이와 같이 위기에 놓인 아이들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싸아올”, “다크유” 언어는 달라도 희망은 하나

지난봄, 대한적십자사는 서서히 잊히고 있으나 절대로 잊어선 안 될 위기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년 전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던 튀르키예, 무력충돌의 상처로 얼룩진 우크라이나.
아픔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안재욱 홍보대사
튀르키예 구호활동
[영상 보기](#)



튀르키예 지진 현장을 찾은 안재욱 홍보대사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에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수차례 이어진 여진으로 튀르키예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폐허가 됐습니다. 사망자 6만 명, 부상자 13만 명, 이재민만 2,300만 명입니다. 그 후로 1년, 튀르키예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난 4월 20일부터 25일, 대한적십자사 안재욱 홍보대사는 튀르키예를 찾아 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지진 피해가 가장 커던 카르만 마라쉬주 파잘직 지역. 뼈대만 남은 건물과 아직 치우지 못한 잔해가 그날의 참혹함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 봄기운이 물씬 나는 튀르키예의 풍경 속에는 이질적이게도 무너진 건물, 폐허가 된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지진을 겪은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부터 세계 각지에서 튀르키예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한국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대국민 모금 캠페인을 열어 급식 제공, 구호물품 배부 등을 지원했으며, 파잘직 지역에 1,000채 규모의 이재민 임시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훈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재욱 홍보대사는 튀르키예적신월사 급식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한 식사 준비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튀르키예 어린이날(4월 23일)을 맞아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튀르키예에 머무르는 동안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싸아올(Saolun, 고마워요) 꼬레’라며 우리의 도움을 감사히 여기며, 다가올 미래에 희망을 잃지 않는 이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Türkiye

Ukraine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한국 구급차 40대

지난 5월에는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공습의 위협이 있어 우크라이나행 항공편은 중단된 상황. 폴란드 바르샤바를 거쳐 육로로 이동해야 했는데요. 국제적십자사연맹에서 제공한 차에 올라 13시간을 달려서야 겨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우크라이나-러시아 무력충돌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328억 원(현금 70억 원, 물품 258억 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김철수 회장이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유는 대한적십자사를 대표하여 국민의 성금으로 마련한 긴급후송용 구급차를 전달하고, 위험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크라이나적십자사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무력충돌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구급차 550대 이상이 손상되거나 파괴됐는데요. 김철수 회장과 주우크라이나 김형태 한국대사 등이 구급차 열쇠를 구급대원에게 건네자 구급대원들은 ‘다크유(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긴박하게 접경지로 떠났습니다.

전달식을 마친 후 김 회장은 전사자들의 추모 공간, 키이우 독립광장을 찾았습니다. 광장에 꽂힌 수천 개의 우크라이나 깃발에는 전사자의 이름, 실종날짜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겪었던 6·25 전쟁이 생각났습니다. 전사자 중에서 어린 친구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처럼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상황이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안정과 평화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철수 회장은 일정 내내 국제적십자사연맹과 국제적십자위원회를 비롯하여 현지에 파견된 각국 적십자사 관계자들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지원을 모색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북쪽 도시인 이르핀과 부차를 방문해 재건복구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일상이 된 공습경보, 미사일을 맞아 무너져 내린 건물, 담장에 박힌 총탄 자국. 끝날 기약 없는 무력충돌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공포를 일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폐해진 이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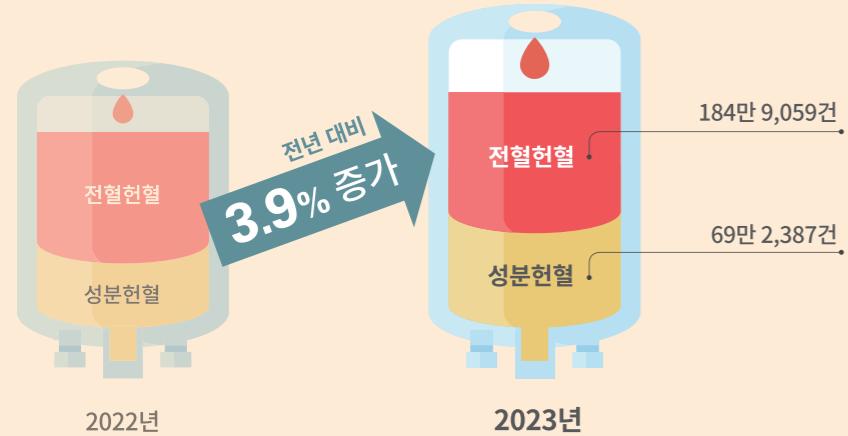


Saving Lives,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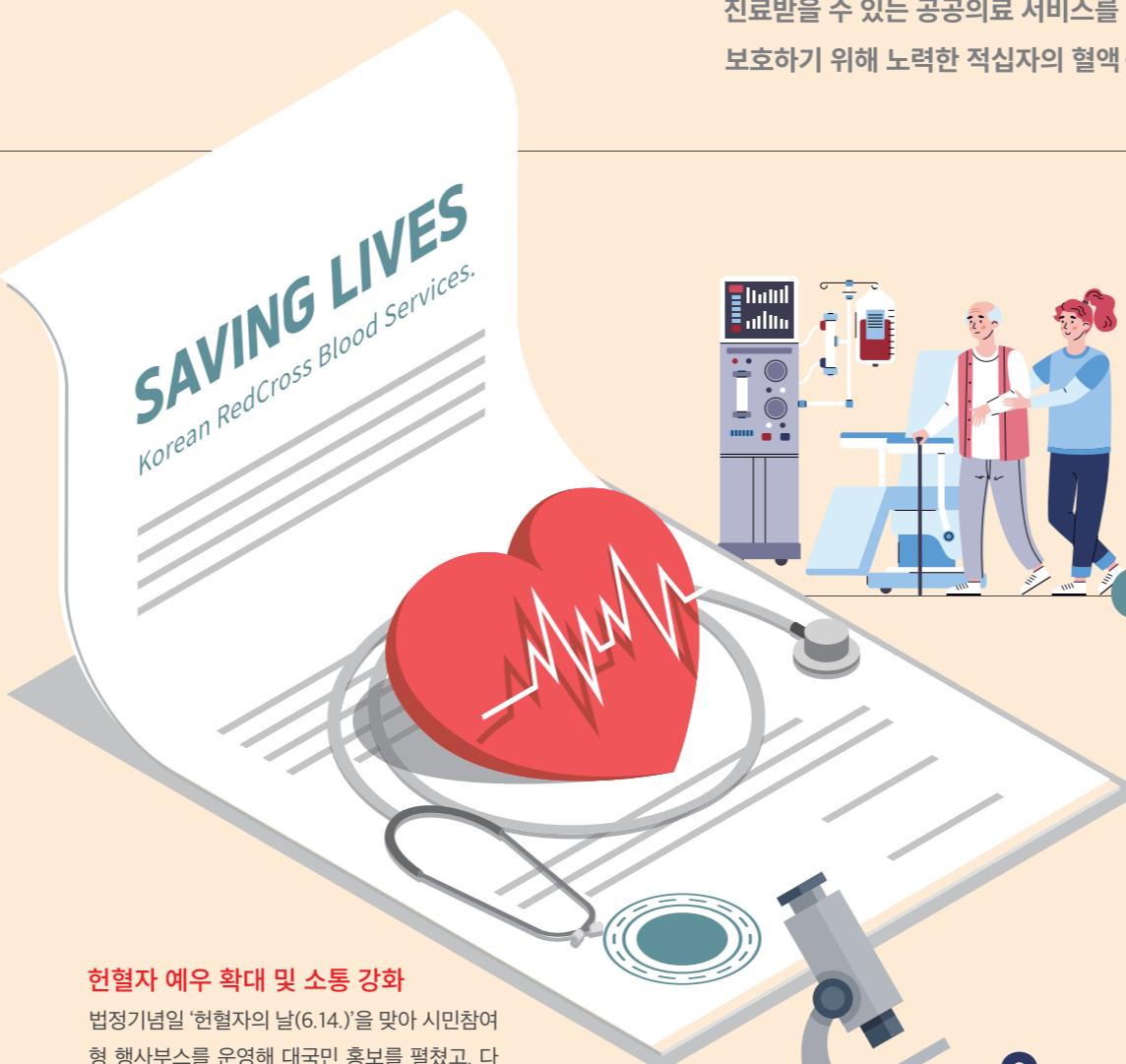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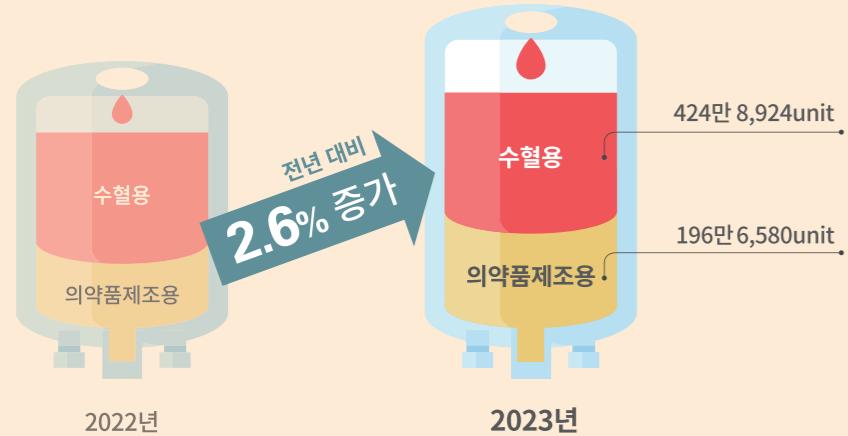
우리의 생명 나눔? 건강한 혈액 나눔!

2023년에는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개인과 단체 헌혈자원 확보에 노력했으며, 헌혈자 중심의 예우와 소통 강화를 위한 헌혈문화 확산에 집중했습니다.

헌혈 실적 총 254만 1,446건



혈액공급 실적 621만 5,504unit



헌혈자 예우 확대 및 소통 강화

법정기념일 '헌혈자의 날(6.14.)'을 맞아 시민참여형 행사부스를 운영해 대국민 홍보를 펼쳤고,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헌혈유공자의 집 명패 사업'을 신규 도입했습니다.

헌혈 홍보 활동을 통한 헌혈문화 확산

헌혈광고 'MY FAVORITE ME'를 송출하고 광고 콘셉트와 연계한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헌혈기부권 모금액(헌혈 후 기념품을 받는 대신 그 금액 만큼 기부)으로 장학금 지급 등 헌혈자의 기부문화 확산에 일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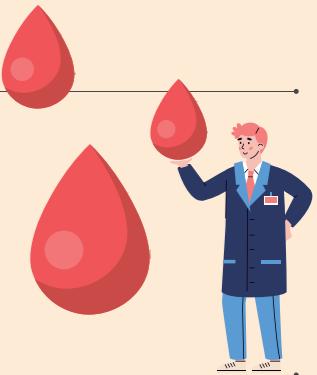


2024 혈액광고
'헌혈은 우하하'



2023 혈액광고
'MY FAVORITE ME'

대한적십자는 안전한 헌혈 환경을 조성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적십자의 혈액·의료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



누구나 누리는 안전한 공공의료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원 지정이 해제된 이후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등 병원 운영 정상화에 집중했습니다. 병원 이전신축 추진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등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기프트카 하트비트’를 아시나요?

대한적십자사와 현대차그룹이 운영하는 이 차량은 안전 교육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모두의 ‘하트’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캠페인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어디든 달려갑니다 트럭은 ‘안전’을 실고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디든 GO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던 4월의 어느 날, ‘기프트카 하트비트’가 경기도 양주시 덕도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기프트카 하트비트(Gift-car Heartbeat)는 국민들의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현대차그룹이 진행하는 ‘찾아가는 안전 교육 캠페인’인데요. 일반 신청자(6인 이하 소그룹)와 도서 산간 지역 초중고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정은 보건교사의 신청으로 덕도초등학교에 출동한 기프트카 하트비트.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안전 교육 전문 강사가 심폐소생술(CPR) 시범을 보이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강사의 원활한 이동과 실습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데요. 이날도 실습 장비를 갖춘 3.5톤의 마이티 트럭을 현장에 지원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정은 선생님은 “지난해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 안전 교육을 받았는데 학생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라며 “올해도 교육을 찾아보던 차에 캠페인을 알게 됐고, 학생들에게 계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신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 UP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덕도초등학교 4~6학년 학생 35명이 안전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사의 시범이 끝나면 학생들은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 ‘애니’의 가슴을 직접 압박하고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부착하며 CPR 과정을 익혔습니다. 6학년 우경림 학생은 “실습을 하면서 가슴압박 위치가 어디인지, 얼마나 힘을 줘서 압박해야 하는지 등 헷갈렸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라며 “응급환자를 마주하게 되면 나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얻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안전 교육을 진행 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장상진 강사는 “안전사고 대처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며 “응급처치법을 숙지한 국민이 많을수록 일상이 안전해지는 만큼, 학생들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응급처치법.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은 지난 2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어 총 605회 1만 303명이 응급처치법을 익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기프트카 하트비트
영상 보기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제주 4호·56호
내내로전자출판 곽경부·디자인늘 강영의 대표

나누니 촘말로 좋수다 (정말로 좋습니다)

제주에는 고유의 나눔 문화인
'수눌음'이 있습니다. 수눌음은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준다는 뜻의 제주
방언인데요. 제주에서 나고 자란
내내로전자출판 곽경부 대표와
그의 아내 디자인늘 강영의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수눌음 정신
실천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눔도 부창부수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역에서 받은 사랑, 사회에 환원

1991년 설립된 내내로전자출판은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인쇄·출판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동화책 <동글동글 동돌과 함께하는 제주신화 이야기>(이하 제주신화 이야기)는 내내로전자출판의 대표작인데요. 이 책은 곽경부 대표의 신념으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오래전부터 아이들의 인성과 감성을 키워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성 발달 체계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주 문화 콘텐츠와 결합한 동화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곽경부 대표는 어린이들의 정서적 합양뿐만 아니라 출판을 통해 확인한 주민들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되돌려줄까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9년 ‘제주신화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열어 동화책과 캐릭터 인형 판매수익 전액을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기부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동화책 원화 및 엽서 전시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에 보탰습니다.

“원화 전시회는 제주 도민에게는 동심을 찾는 시간이 되고, 어울러 나눔도 참여하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나눔 실천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제게 더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눔은 일상’ 부창부수 나눔 실천

2000년대 초, 곽경부 대표는 봉사원으로 적십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강산이 두 번 바뀐 현재까지도 양로원 위문 봉사, 바다 정화 활동, 희망봉차 물품 전달 등 도움이 필요한 현장이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와 함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 희망나눔 특별성금 전달,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제주 4호(전국 67호) 가입 등 지역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2018년 대한적십자사 최고명예장,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회공헌 표창 등을 수상했습니다.

“어느덧 나눔은 제 삶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든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나눔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해도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눔의 시작은 어렵지만 그 기쁨을 알게 되면 나눔을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곽 대표의 선행 못지않게 부인인 디자인늘 강영의 대표도 남다른 이웃 사랑을 자랑합니다. 묵묵히 남편의 선행을 지지해온 강영의 대표는 지난 5월 22일 제주지사에 1억 원을 기부하며,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제주 56호로 가입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나눔 프로그램인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남편의 적십자 활동을 지켜보면서 항상 존경스러웠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에 기부를 결정했어요. 이번 기부로 제주의 소외된 이웃을 돋는 인도주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디자인늘의 사명에는 ‘늘 언제나 처음처럼’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내로전자출판의 ‘내내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초심을 기억하고 처음과 같은 자세로 살고 싶다는 곽경부, 강영의 대표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더 오래도록 사회에 봉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제주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에 동참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겠습니다.” ●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 사랑이 필요한 곳이면 ‘노란 조끼’를 입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적십자봉사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있어 세상은 더 아름답습니다.

지난 5월,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조건 없는 선행을 베푸는 이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만큼은 봉사원들이 주인공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적십자 활동의 심장, 적십자봉사원

5월 8일은 적십자운동을 창시한 ‘장 앙리 뒤냥’의 탄생을 기념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확산하는 ‘세계적십자의 날’입니다. 올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정한 세계적십자의 날 슬로건은 ‘인도주의는 계속돼야 합니다(Keeping Humanity Alive)’인데요. 무력충돌과 재해·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 활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 191개국 적십자사는 전 세계 1,500만 봉사원의 노력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도 서울사무소에서 ‘제77회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을 열어 인도주의 활동에 힘써준 봉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2012년부터는 직계 3대에 걸쳐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가문에게 ‘봉사명문가’라는 이름의 표창도 수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조옥수 봉사원 가족이 선정됐습니다. 조옥수 봉사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재난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이를 보고 자란 딸 이경실·이경남 봉사원과 손자 정연준 봉사원은 취약계층 결연세대 방문, 제빵 봉사, 반찬 나눔 등에 참여하며 3대(代)가 총 46년 9,765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천했습니다. 이 외에도 적십자는 최근 1년간 헌신적인 활동으로 모범이 된 봉사원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적십자 봉사원상, 청소년적십자(RCY) 활동 유공 표창을 통해 봉사원들의 땀과 노력의 시간을 격려했습니다.

지역사회와 밀접, 적십자봉사회

5월 9일에는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2024 자랑스러운 적십자봉사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본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 시상식은 재난구호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봉사회를 시상하고 격려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사랑으로 채우는 적십자봉사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전국 6,300여 개 봉사회 중 활동이 우수한 15개 봉사회(사랑상 1개, 봉사상 1개, 밀알상 13개)에게 상패와 상금이 전달됐습니다. 사랑상을 수상한 전북 익산나눔의료봉사회를 살펴보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특정약을 장복해야 하는 홀몸 어르신들이 제때 약을 챙기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365 건강 약 달력’을 활용한 돌봄 활동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김인희 익산나눔의료봉사회장은 “어르신들께 직접 찾아가 투약 관리를 해드리고, 말동무가 되어 외로움도 덜어드리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지 함께하겠다”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적십자운동이 오랜 세월 인류애를 실천하며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봉사원 덕분입니다.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과 자랑스러운 봉사회 시상식을 마련한 것도 봉사원들을 예우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 적십자는 봉사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웃의 손을 놓지 않고 진심을 다해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모두가 적십자의 자랑입니다. ●



자랑스러운 적십자
대한적십자사
자랑스러운 적십자
전북 익산나눔의료봉사회 김인희 회장이 봉사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
보러 가기



‘인도주의’가 우리를 웃게 해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여전히 생생한 지진의 여파, 그럼에도 삶은 계속돼야 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곳에 적십자가 달려왔습니다.

인도주의가 살아있는 한 모든 생명은 반드시 구해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사람을 살피고 재난의 흔적을 지워갑니다.

아이들이 비로소 웃습니다. 좌절과 상실이 새로운 희망과 도약으로 바뀌어 갑니다.

다시 일어서야 하는 현장에 언제나 적십자가 함께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크고 작은 역경, 시련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튀어 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뜻합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는 우리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마음 근력을 단단하게 키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글 |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마음 근력을 단단하게 키우는 법

몸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느끼는 곳은 같다

우리 주위에는 실패와 시련을 '회복 탄력성'으로 극복하여 원래 지점보다 더 높이 도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 정신의학, 간호학, 교육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은 회복 탄력성의 핵심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거론합니다. 이 습관을 통해 밑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튀어 오르는 회복 탄력성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습관'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지능이나 재능과 같이 인지적인 것이 아니라 끈기, 열정, 집념, 도전정신과 같은 비인지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능력 자체보다는 '나의 능력이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에 기반한 내적 동기가 중요합니다.

긍정적 관점, 도전, 내적 동기,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그 자체는 모두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입니다. 서점에 있는 회복 탄력성 관련 도서를 아무리 읽어도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야 가질 수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에는 우리의 정신력과 신체적 상태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체력이 바닥났으니 이제는 정신력으로 버티라는 말은 대부분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은 신체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복 탄력성은 정신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를 높이려면 신체에 대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일종의 조치 말입니다.

사회적 고통으로 힘들 때 '몸'을 돌봐야 한다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겪는 고통은 주로 사회적 맥락을 통해 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동료와의 이별, 누군가에게 받는 질책, 상사나 주위 사람들과의 갈등 등 이른바 관계 속에서 받은 고통으로 아파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고통(Social Pain)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물리·신체적 고통은 교통사고와 같이 실제 사고를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대표 인지심리학자로서 인간의 판단, 의사결정, 문제해결, 그리고 창의성에 관해 연구한다.
저서로 <마음의 지혜>,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 생활>, <적정한 삶> 등이 있다.



당해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사회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 모두 뇌에서 반응하는 영역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진통제는 상처 부위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고통을 담당하는 중추 영역을 진정시키죠. 그렇다면 사회적 고통을 느낄 때 진통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덜 느껴질까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미국 켄터키 주립대학의 네이선 드월(Nathan DeWall) 교수 연구진은 이별과 같은 사회적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진통제 복용 집단은 같은 기간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은 집단이나 위약(偽藥, placebo, 환자에게 심리적 효과를 얻도록 하려고 주는 가짜 약)을 복용한 집단보다 3주 후 고통과 관련된 감정을 훨씬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신체적 고통과 같이 사회적 고통 역시 진통제로 완화될 수 있다니 말입니다. 이는 결국 이별, 갈등, 모욕, 그리고 배신과 같이 우리가 사회 속에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다면 몸을 다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로 몸을 다쳐 입원한 환자를 병원에서 어떻게 돌보는가를 떠올려 보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혈액순환이 잘되도록 하며, 충분히 잠을 자도록 하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몸을 다쳐 고통스러운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 부터 돌봐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몰라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그리도 사회생활이 어려웠나 봅니다. 오늘부터 이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사실을 꼭 실천에 옮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의 삶과는 확연하게 다른 힘을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요. ●

1) DeWall C. N., MacDonald, G., Webster, G. D., Masten, C., Baumeister, R. F., Powell, C., Combs, D., Schurtz, D. R., Stillman, T. F., Tice, D. M., & Eisenberger, N. I. (2010). Acetaminophen reduces social pain: Behavioral and neural evidence. *Psychological Science*, 21, 931-937.



본사

대한적십자사 4년 연속 스타 공익법인 선정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3월 공익기관인 '한국아이드스타'로부터 4년 연속 스타 공익법인으로 선정되었다. 스타 공익법인은 기부금 운영 및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인정받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익법인을 말한다. 한국아이드스타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내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책무성, 재무 효율성을 측정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투명성과 책무성, 재무 효율성에서 모두 만점인 별 3개를 받았다. 지난해 평가 대상 1,126개 법인 중 만점을 받은 법인은 43곳에 불과하다.



서울지사

김민환 응급처치 강사, 심폐소생술로 시민 살려

서울지사 응급처치 강사로 활동하는 국회 사무처 직원 김민환 씨가 쓰러진 사람의 생명을 구해 화제다. 김민환 씨는 지난 3월 4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 A씨를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후 A씨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병원에서 의식이 소생되었다. 김 씨는 현재 서울지사 응급처치강사로 활동하며, 심폐소생술 보급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울산지사

2024년 명예의전당 등재식 개최

4월 26일, 울산지사는 명예의전당 등재자, 적십자 임·위원, 봉사원 등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명예의전당 등재식'을 개최했다. 이날 근원의료재단 경산중앙병원 정민혜 이사장, 한진건설 신성민 대표이사가 고액기부자 명단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등재됐으며, 이분희 북정봉사회장이 1만 시간 이상 봉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부문에는 (주)동원개발 등 총 50개의 개인·기관·단체가 새로이 등재되었다.



경기지사

2024년 1권역 재난구호 종합훈련 진행

경기지사는 5월 22일 화성시민대학 운동장에서 '2024년 1권역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화성시청, 화성시소방서, 화성시보건소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1권역(서울·인천·강원) 지사와 서울적십자병원이 참여했다. 올해 훈련은 지진 발생에 따른 대규모 이재민 발생 상황을 가정해 이재민 대피소 설치, 아마무선 기지국 시연, 구호급식소 운영, 재난구호 특수차량 운영, 재난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대구지사

사회적 가치 실현, 거림테크 아너스기업 등재

5월 20일, 거림테크(주)는 대구지사 1억 원 이상 고액기부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에 19번째로 가입했다. 거림테크는 LCD전자부품 제조기업으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지역 내 대표 중소기업이다. 거림테크(주) 이창원 대표는 "어려운 이웃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인천지사

인천글로벌시티, 나눔 뜻 모아 아너스기업 가입

3월 18일, 인천글로벌시티가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에 인천 15호, 전국 232호로 가입했다. 2014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는 재외 동포의 국내 정주를 위해 주거시설 조성 사업을 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또한 인천글로벌시티 백응섭 대표이사는 인천지사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어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충북지사

'선생님! 존경합니다' 캠페인 전개

충북지사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충청북도 교육청과 함께 '선생님! 존경합니다' 캠페인을 펼쳤다. 충청북도교육청 윤경영 교육감의 RCY 명예회장 위촉과 함께 진행된 이 캠페인에는 도내 50개교 RCY 단원 및 지도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카네이션 배지 달아드리기, 감사 편지 쓰기 등을 진행하며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북지사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태세 집중 점검

경북지사는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5월 22일부터 28일까지를 재난대응태세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구호물자 관리 및 특수차량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구호사업 운영 시스템 발전을 위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지사 서수희 구호봉사팀장은 "도내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행정기관과 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KLPGA 선수 12명, 홍보대사 위촉

대한적십자는 3월 25일 2024년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홍보모델인 이예원 선수를 비롯한 12명의 선수를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위기가정 자립 기금 모금을 위한 '2024년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자선골프대회'에서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받은 선수들은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하며 이어진 자선골프대회에 참여했다. 향후 이들은 KLPGA와 함께 자선행사, 적십자 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적십자 인도주의 홍보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소속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상향

4월 8일, 대한적십자는 '2023년도 반부패 추진실적 및 청렴마일리지 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했다. 반부패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3년 연속 모든 기관 점수가 상향하는 등 반부패 활동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증가했다. 우수기관으로는 강원지사, 중앙혈액검사센터, 인천적십자 병원이 선정됐다. 청렴마일리지 우수기관은 인재개발원, 울산혈액원, 영주적십자병원이 선정됐다. 한편 대한적십자는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고,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1등급을 획득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시, 꽃길로' 론칭

대한적십자는 5월 2일,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자립시, 꽃길로' 프로젝트를 론칭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후 꽃길만 걷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은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200여 명의 참여자들은 자신을 알아보는 다양한 질문에 답하는 '한 달 기록 챌린지'에 참여하며, 챌린지를 완수한 자립준비청년 중 선발된 20명에게는 4개월간 총 12차례에 걸친 △정서 △생활교육 △경험 확장을 위한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학교 푸르게' 가꾸는 식목 활동 전개

청소년적십자(RCY) 부산본부는 RCY 창립일인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환경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RCY 우리학교 푸르게 가꾸기' 식목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에는 부산 소재 초중고등학교 32개교 5000여 명의 RCY 단원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학교 교정에 영산홍, 철쭉, 석류 등 372그루의 묘목과 허브 130본 및 마거리트, 팬지 등 화초 1,512본을 심고 교정을 가꾸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환경을 푸르게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제강, 아너스기업 부산 32호 가입

5월 25일, 대한제강이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부산 32호로 가입했다. 대한제강 이경백 대표 이사는 "지역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기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지역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다음 세대 육성을 위해 기여하겠다"라고 가입 소감을 밝혔다. 한편, 1954년 창립한 대한제강은 철근 업계 3위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으며, 공장 작업용 개인보호장비 브랜드와 친환경 온실 작물 재배 브랜드 등을 추가 운영하며 ESG 상생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걸으며 위기茄정 돋는 '누구나 Go!, Walking' 개최

부산지사와 TBN 부산교통방송은 5월 11일,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긴급위기茄정을 지원하기 위한 '누구나 고(Go), 워킹(Walking)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3회를 맞이한 걷기대회는 날로 인기가 더해지면서 일반 시민, 봉사원, RCY 단원 등 2,000여 명이 참가해 나눔 실천을 함께했다. 이날 부산시, TBN 부산교통방송, (주)지맥스, 디프로매트, 부산우유, 산청푸드, 고려은단 등이 긴급위기茄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품을 부산지사에 전달했다.



봉사원의 유산기부로 20년째 이어온 형호안나장학회

서울지사는 4월 1일 형호안나장학회에 20주년 감사패를 전달했다. 학습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돋기 위해 설립된 형호안나장학회는 고(故) 문복남 적십자봉사원의 유산기부로 시작됐다. 문복남 봉사원은 평생 모은 재산인 건물을 서울지사에 유산기부했고, 이 건물의 임대 수익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장학회는 올해 초·중·고등학생 14명에게 학습지원금 2,800만 원을 전달했다. 한편, 2004년 장학회 설립 이후 20년간 242명의 학생에게 3억 6,997만 6,480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동화약품, 활명수 126주년 기념판 판매 수익금 기부

서울지사는 4월 15일부터 LG생활건강과 함께 하는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야, 웃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학교야, 웃자!'는 청소년들의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LG생활건강의 후원으로 6년째 진행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했다. 지난해 서울지사는 서울 지역 초·중학교 122개교에서 1,826회의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164개교 2,400회를 목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LG생활건강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PHA 후원, 희망풍차 물품지원사업 실시

대구지사는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PHA의 후원으로 희망풍차 물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희망풍차 물품지원사업은 적십자 희망풍차 결연세대에 기초생계물품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시민과 기업의 후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4월은 PHA 후원금 1,000만 원으로 실시했으며, 세대별 기초생계식품(곡식류 1종, 즉석조리식품 2종) 1세트를 관내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기타위기茄정 927세대에 전달했다.

영신초등학교, 아나바다 장터 판매 수익금 기부

영신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나바다 장터 교복 판매를 통해 직접 모은 성금을 5월 8일 대구지사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대구 관내 아동·청소년 및 위기茄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영신초등학교 서순덕 교장은 "장터 운영을 통해 경제활동의 흐름을 이해하고, 기부를 통해 나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몸소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대성에너지 임직원, '꿈을 이뤄, 드림(Dream)' 사업 실시

5월 27일, 대구지사는 대성에너지와 '꿈을 이뤄, 드림(Dream)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꿈을 잊지 않도록 저소득가구 중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후원금은 대성에너지 임직원의 기부(50%)와 사측 기부(50%)로 마련되었다. 대성에너지는 매년 적십자와 함께 여름 삼계탕 나눔, 명절 희망꾸러미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지사



구호 레시피북 모의 훈련 및 나눔활동 실시

3월 29일, 인천지사는 구호 레시피북 모의 훈련 및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 현장 구호 급식의 표준화를 위해 인천지사에서 출간한 '구호 레시피북'에 수록된 식단을 이용해 진행되었다. 이날 제작된 200인분의 식사는 연수푸드마켓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밝은 마음)에 각 100인분씩 전달되었다. 한편 '구호 레시피북'은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스타트업 공모전 선정사업으로 'Red Cross Gala' 기부금을 통해 제작되었다.

경동 임경하 대표, 재난구호차량 기증

5월 8일,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아 경동 임경하 대표가 인천지사에 재난구호차량을 기증했다. 임경하 대표는 2023년 3월 인천지사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날 기증된 재난구호차량은 서구 청라지역에 신설된 서북봉사관에 배치되어 인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나눔·생명 존중의 가치 전하는 '함께 걷자, 생명존중 페스타'

5월 18일, 인천지사는 '2024 함께 걷자, 생명존중 페스타'를 인천증라호수공원에서 개최했다. 임경하 대표는 2023년 3월 인천지사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날 기증된 재난구호차량은 서구 청라지역에 신설된 서북봉사관에 배치되어 인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대전·세종지사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구슬땀

대전·세종지사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수혜가구는 차상위 가구로, 집 자체가 오래되고 낡아 모녀가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두 번째 수혜가구는 건강상 거동이 어려워 집 안팎을 정리하지 못해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각종 쓰레기가 적치돼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했다. 환경개선에 참여한 적십자봉사원들은 쓰레기 수거, 회장실 청소, 집안 정리정돈 등 대청소를 진행했다.

자립준비청년 밑반찬 및 자기계발비 지원

대전·세종지사는 5월 9일, 도담도담 맘카페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및 지역아동센터 약 500명에게 전달할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평소 영양을 챙기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장조림, 멸치, 소시지전 등의 반찬과 과일을 전달했다. 한편 대전·세종지사는 'Red-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자립 지원 전담 기관과 후원자를 연결해 자립준비청년의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총 12명에게 자격증 취득비 1,050만 원을 지원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

대전·세종지사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을 통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적십자 응급처치강사가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3월 14일 문화동에 소재한 시민칼국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총 21회 246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시민칼국수 조현주 대표는 "가게를 운영하느라 시간을 내기 힘들었는데 직접 찾아와 교육을 진행해 주셔서 유익하고 좋았다"라고 전했다.

울산지사



'RCY라서 자랑스러워' 합동입단선서식 개최

울산지사는 6월 1일, 문수호반광장에서 RCY 단원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RCY 합동입단선서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서식은 RCY 창립 71주년을 기념하고 RCY 단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단원 맹세, 신규 결단교단기 수여 및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은 "RCY 단원들을 직접 만나 입단을 축하하게 돼 기쁘다"라며 "나눔과 봉사에 함께해주신 울산 시민과 적십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울산 HD FC와 함께하는 '레드크로스 데이'

울산지사는 6월 1일,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 HD FC와 함께하는 제6회 Red Cross 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울산 HD FC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스포츠 문화를 즐기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축구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적십자 구성원에게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재난구호 VR 체험부스, 페이스 페인팅, 헌혈버스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손글씨로 전하는 따뜻한 마음 'LOVE HAND'

울산지사는 3월 27일, 'LOVE HAND' 시민참여 3월 결연물품 포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일반 시민 25명, 중구적십자봉사회 봉사원 15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손편지를 작성했으며, 손편지와 직접 포장한 생필품을 적십자 결연세대 총 660세대에 전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손편지를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응원을 전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다"라며 "함께 전달한 물품도 생활하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지사



경수고속도로(주), 취약계층 대상 건강한 식생활 지원

경기지사는 5월 7일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로부터 저소득 가정의 식생활 지원을 위한 기부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전달받은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망풍차 결연세대에 수제 고추장과 된장을 제작, 전달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식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수고속도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 건설 및 제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업으로, 2019년부터 경기지사와 함께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가정의 달 맞아 '적십자와 함께하는 봄빛 축제'

봉사회 오산지구협의회가 5월 4일 오산 맑음터 공원에서 '적십자와 함께하는 봄빛 축제'를 개최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결연세대 어린이와 독거 어르신들에게 놀이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 지원을 위한 자리였다. 이날 봄빛 축제에서는 마술쇼, 가수 축하 공연, 국악 공연, 텅드럼·우쿨렐레 연주 등이 진행됐다. 또한 심폐소생술 배우기, 생명의 흐루 라기 만들기, 생존키트 만들기, 탄소 발자국 찍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기후변화 메시지 담은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진행

경기지사는 5월 12일 강남대학교, 수원·향남지역 RCY 단원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벽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기후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깨끗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강남대학교 아트스페이스 소속 대학생의 주도하에 활동을 진행했으며, RCY 단원들은 노후한 경기지사 외벽을 정성 들여 채색했다.



'나무를 심다, 미래를 심다' 식목 행사 개최

강원지사는 4월 17일, 강원지역 청소년 100여 명과 함께 '나무를 심다, 미래를 심다' 식목 행사를 국립춘천숲체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삼성,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직접 나무를 심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소원 리본'을 묶으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문막봉사회, 자랑스러운 봉사회 '봉사상' 수상

봉사회 원주지구협의회 문막봉사회는 5월 9일, 국무총리 세종관공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봉사회 시상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봉사상을 받았다. 문막봉사회는 1992년 최초 결성되어 현재 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누적 봉사 시간만 17만 3,793시간에 달한다. 문막봉사회는 장애인 복지 활동, 사랑의 집 수리 봉사, 이동 세탁 봉사, 중·대형 재난구호활동, 코로나19 구호 활동 등을 이어온 공을 인정받아 이번 봉사상을 받았다.

이·통장 한마음대회서 적십자 활동 홍보

강원지사는 5월 30일, 고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통장 한마음대회에서 적십자 재원 조성을 위한 모금 활동과 적십자 홍보 및 재난심리 회복 지원 부스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 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부스에 참여한 한 이장은 "한마음대회를 통해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교육을 받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좋았고, 배운 지식을 토대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쟁기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천시장 화재 피해 지원에 적극 참여 '감사패' 수상

4월 2일, 충남지사는 2023년 4월 산불 피해가 발생한 홍성군 서부면 양곡리 일대 지역의 산림 복구를 위한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주)카카오게임즈의 후원을 통해 마련됐으며,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를 비롯한 충청남도의회 및 홍성군청 관계자, 홍성 서부초등학교 학생 및 적십자봉사회 홍성지구협의회 봉사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약 3,000m²의 면적에 편백나무 2,000여 그루를 심재했다.

마음회복과 치유를 위한 '마음톡톡' 실시

충남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5월 2일, KT&G 논산상상마당에서 '마음톡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마음톡톡'은 심리 교육, 신체 및 심리 안정화를 주제로,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상반기는 멘캉스콜(코로나 후유증 예방 상담)에 참여했던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공동체 내 감정 공감 능력 및 응집력을 키우는 활동뿐만 아니라 나만의 글씨체로 텀블러를 만드는 캘리콥스 활동을 통해 자연순환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기후원 참여, ESG 실천기업 충북 1·2호 탄생

4월 19일, 한가람에프앤비 농업회사법인(주)가 ESG 실천기업 충북 1호로 기입했다. 한가람에프앤비 농업회사법인 장미란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기입 소감을 전했다. 5월 31일에는 (주)제이투케이바이이오가 ESG 실천기업 충북 2호로 기입했다. 제이투케이바이이오 김석종 전무이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두 기업은 월 50만 원 정기후원을 통해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양부녀봉사회·옥천부녀봉사회 50년째 이어온 사랑 나눔

봉사회 단양부녀봉사회는 5월 20일, 단양중앙공원에서 결성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974년 결성되어 50년 동안 누적 8만 9,000시간을 봉사했으며, 현재 29명의 봉사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옥천부녀봉사회도 5월 27일, 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1974년 5월에 결성되어 현재 40명의 봉사원이 반찬 봉사, 김장 나눔, 환경정화활동 등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충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신규 상담활동가 위촉

충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3월 26일 충북지사에서 신규 상담활동가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상담활동가 15명이 참여했으며 위촉장 전달, 센터 사업안내, 심리적응증처치(PFA)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충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는 현재 총 64명의 재난심리활동가가 위촉되어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재난심리활동가의 전문성 향상 및 정신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소아암 환우 돋기 골프대회, 성금 2,000만 원 기부

3월 22일, '전북일보 배 소아암 환자 돋기 아마추어 골프대회' 참가자들이 성금 2,000만 원을 전북지사에 전달했다. 행사를 주최한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은 "소아암 환우를 돋기 위한 이번 대회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 모인 성금이 소아암 환우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북일보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이웃사랑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치매 환자와 가족 모두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한뜻'

3월 27일, 전북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식을 실시했다. 이번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치매 인식 개선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나눔문화 확산, 안전사회 구현 및 인도주의 정신 확산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명일 광역치매센터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만들어내는 시너지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지구를 지키는 소중한 한 걸음

5월 18일, 전북지사는 '한 걸음씩 더, 지구를 지켜주세요' 슬로건 아래 제12회 아름다운 동행 희망풍차 나눔걷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참가자 700여 명은 한 걸음에 1원씩 1만 보를 걸으며, 참가비 1만 원을 기부해 나눔에 동참했다. 또한 전북지사는 전주 기지제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도 알렸다. 이날 모인 기부금은 도내 위기기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를 후원한 전북은행은 도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1,000만 원을 전북지사에 전달했다.



평동산단 화재 현장 구호활동 실시

광주·전남지사는 4월 13일 발생한 평동산단지 의류 재활용업체 화재 현장에 적십자봉사원과 직원을 파견하는 등 구호활동에 나섰다. 광주·전남지사는 직원과 봉사원 8명, 재난회복지원차량 1대를 파견했으며 소방대원 및 대피 인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급식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활동과 함께 화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에게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봉사원 화합의 장, 적십자봉사원대회 열려

4월 17일, 광주·전남지사는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제14회 광주·전남 적십자봉사원대회를 개최했다. 적십자봉사원대회는 구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 봉사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봉사원 간 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성 장흥군수 등 내빈과 적십자봉사원 및 임직원 1,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소속감·자긍심 고취 'RCY 합동입단선서식'

5월 15일, 광주·전남지사는 RCY 단원과 지도교사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RCY 합동입단선서식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단원들은 RCY 홍보 영상 시청과 단원 맹세를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였다. 또한 RCY 지도교사에게 직접 작성한 손편지와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지사 허정 회장은 "스승의 날은 RCY 단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날이기에 더욱 의미 있다"라며 "단원들이 인도주의 정신을 배우고 우리 주변 이웃을 돋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발전 도모 '총회' 개최

경남지사는 4월 23일~24일, 소노캄 거제에서 '제62차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전국의 자문위원을 비롯한 내외빈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년도 활동에 대한 평가와 금년도 활동계획을 수립해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의 발전을 도모했다. 개회식에서는 기수단 입장과 시설 위문금 전달,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의 주제 강연이 진행됐다. 본 회의에서는 2023년도 사업 보고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2024년도 분과 활동 계획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너스기업 경남 20·21호 등재식 열어

5월 21일, 경남지사는 경남스틸과 챔피언 더시티세븐몰 창원점의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경남 20·21호 명예의 전당 등재식을 개최했다. 1억 원 이상 기부한 법인단체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에 등재된 경남스틸 최석우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기업이 되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챔피언 더시티세븐몰 창원점의 정길영 대표이사는 "뜻깊은 나눔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공상 소방관 지원 위해 해피빈 모금액 전달

5월 22일, 경남지사는 의창소방서와 공상(공무 중 부상을 입음) 소방관 지원 해피빈 모금액 전달식을 진행했다. 3,900여 명의 기부자로부터 모금된 5,000여만 원을 의창소방서 김규빈 소방관에게 전달했다. 김 소방관은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도로에 쓰러진 가로수를 제거하던 중 경주 골절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은 "이번 모금액이 김규빈 소방관의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어려움을 겪는 소방관의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집중호우 피해 1년 후, 위로와 온정의 손길 이어져

3월 8일, 경북지사는 작년 예천군 집중호우 피해로 임시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 28가구와 영주시·봉화군 취약계층 116가구를 직접 방문해 '희망품자 물품(식료품)'을 지원했다. 또한 3월 15일에는 예천군 효자면 외 3개 마을에서 집중호우 수해 이재민 24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활동을 실시했다. 적십자봉사회 예천지구협의회 김성자 회장은 "시간이 지나도 이재민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이웃들이 많다는 것에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며 이재민의 향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영양군협의회, 독거 어르신 위한 '생신상 차림'

4월 2일, 적십자봉사회 영양군협의회 봉사원 20명은 지역 독거 어르신 12명을 대상으로 생신상 차림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영양군협의회는 2018년부터 분기별로 어르신을 위한 생신상 차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영양군협의회 박정숙 회장은 "어르신들께 정성 어린 생신상을 대접하며 안부를 묻고 서로 온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 심폐소생술 홍보 캠페인 진행

5월 12일, 대구광역시 수성못에서 응급처치강사봉사회와 수상안전강사봉사회 소속 봉사원 35명이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 심폐소생술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양 봉사회는 제20회 대구시장애인전국체육대회 철인 3종 대회와 5월 8일 '세계적십자의 날'을 기념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선수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적십자 안전교육 사업 안내를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들은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하이리히법 등을 체험했다.



김문자 전 중앙위원장 네팔적십자사 포장증 수상

3월 18일, 김문자 대한적십자사 전 중앙위원장이 '외국인 최초'로 네팔적십자사 총재가 수여한 포장증을 수상했다. 김문자 전 중앙위원장은 2019년 덕회봉사회를 통해 '네팔 학교 기반 위생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2,000만 원을 후원했으며, 올해 3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봉사활동을 재추진해 네팔의 취약계층을 돋는 데 기여했다. 이를 기반으로 제주지사는 네팔 룸비니 루판데이지구에서 건물 보수, 위생시설 설치 등 학교 시설환경을 개선했으며, 김문자 전 중앙위원장은 공로를 인정받아 포장증을 받았다.

제주지역 발전 위한 미래발전위원회 40명 위촉

4월 23일, 제주지사는 아스타호텔에서 '제주적십자사 미래발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되었다. 위촉식을 시작으로 위원들은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적십자 활동의 도민 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지사는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사라봉 둘레길 걸으며 이웃사랑 실천

5월 19일, 제주지사는 사라봉 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배우 최대철, 내외빈, 자원봉사자, 행사 참여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 제주사랑 자선 만 보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총 10km의 사라봉 둘레길을 걸으며 한 걸음에 1원씩 기부금(참가비 1만 원)을 적립했다. 10회째를 맞이하는 제주사랑 자선 만 보 걷기대회는 제주지사의 대표 나눔 프로그램으로 모금 목표인 1억 원을 초과 달성을 했다. 이번 모금액은 교육청과 연계해 난치병 학생 치료 및 밀반찬 나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나눔을 함께하는 분들

누적 모금 총액(2024. 3. 1. ~ 2024. 5. 31.)

적십자회비 38,912,297천 원

정기후원 25,369,639천 원

프로그램 후원 내역(2024. 3. 1. ~ 2024. 5. 31.)

사회공헌협약 체결

IFRC KBS한국방송 지앤푸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호반그룹 홈플러스

사회협력 기부금품 내역

1억 원 이상 ALCOVEINVESTMENTMANAGEMET,LLC (주)씨제이이엔엠
경남제약주식회사 교촌에프앤비(주) 기아(주) 김영해 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식회사에스아이치du 현대자동차(주)
한국수력원자력(주)

5,000만 원 이상 (주)영원무역 고려아연 주식회사더스킨팩토리 주식회사플랜엠
한국수력원자력(주)

1,000만 원 이상 (주)경원문화재단 김경우 김윤철서광산업 모과균
사회복지법인에스피씨행복한재단 앤프라니주식회사 우리은행 이상용

재단법인인사생의료재단 주식회사태림목재양천자점 지멘스(주)
신한은행본점 하재욱 한국아즈밀(주)

500만 원 이상 (주)공영홈쇼핑 (주)코스틸 LG유플러스천원의사랑임직원 강혜연
신한은행본점 하재욱 한국아즈밀(주)

100만 원 이상 (주)한국제약바이오헬스(주)디오니 (주)경주아이씨에스 (주)남진팜 (주)다원시스
(주)다함께 (주)엠오티 (주)엠아이 2PM 정우영 Justbeyou KB부동산신탁(주)

강지영 고광만 고려당 고손주한 고윤권 커태문 김병수 김승재 김유림 김인규
김정동 김종순 김준영 김진우 김철수 김황록 두산건설주식회사

디아민티스타 목계선 민선식 박경희 박민영 박준 배종채 백인계
변호사조재연법률사무소 본사온라인무기명 부일교통주식회사 소재선

송효숙 아시아투데이(주) 양지치과의원 에이엔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우예는 유니브 의료법인순천의료재단성남정병원 이경재 이돈섭 이병웅

이상윤 이석주 이성용 이숙 이영웅 이육희 이윤규 이은정 이재일 이지은
임성주 임종걸 장대식 장영임 장원정 전재희 정상은 정우성 정창호 조래호

조재환 조정환 조효승 주식회사더베스트그룹 주식회사센스팜 주식회사선린
주식회사아트로 주식회사하림자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진철훈 최성호 최아영

최희업 풀도래(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식도공업(주) 한국콜마홀딩스주식회사
한도형 한성완 한영실 흥길식 흥미경 황선조 황선화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현황(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가나다순(2024년 6월 14일 기준, 익명 기부자 8명, 중복 1명 포함 총 265명)

故정묘한 강난파 강석중 강신애 강신혁 강영신 강영의 강옥채 강원선 강은희 강중구 강태선

고광만 고진호 공봉애 곽희순 구본무 구정희 구한조 권오록 권혁홍 김경배 김경조 김경희

김교숙 김남곤 김남희 김대곤 김우임 김문자 김미량 김민호 김병수 김병관 김병숙 김봉우

김상열 김상태 김상희 김선향 김선호 김성주 김수관 김애란 김영식 김영자 김영현 김영혜

김영희 김우준 김윤희 김윤철 김은용 김은재 김의기 김인순 김일랑 김자경 김재봉

김정규 김정수 김종기 김진태 김첨남 김철 김철용 김철용 김초원 김태연 김태영 김택남

김한 김한성 김홍일 김홍국 김홍수 김홍식 김효봉 김휘성 김희월 김희철 남성희 남종현 도경희

류시문 문명재 문은수 문진석 민경용 박병선 박순단 박승현 박연자 박윤미 박장배

박재규(2회 가입) 박재연 박재천 박재홍 박주환 박종근 박종태 박준영 박해진 박흥석 박희순

백낙한 백인계 변순자 변정섭 서봉군 서봉숙 서의수 서정의 석승한 성점화 손덕임 손창우

송광자 송경자 송길자 송옥희 송재승 송준기 신동심 신성민 신수봉 신숙경 신용구 신정택

신현국 신현봉 안용수 안재우 인종업 양문자 양인준 양창호 오길순 오복진 오연서 오현봉 우현희

유봉기 유중근 유진중 윤명영 윤미선 윤병철 윤신일 윤옥자 이강운 이강원 이경호 이도희

이동건 이병현 이상락 이상록 이서례 이선진 이선홍 이성구 이세웅 이수만 이승연 이승엽 이승기

후원자님의 따뜻한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전남지사

1,000만 원 이상 김열화
500만 원 이상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국민은행 우리은행
100만 원 이상 강용구 광주환경공단 김순미 나현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송옥순 오매숙 이경순 이신일 이신화 일곡88정협외과의원 한국전력거래소
한빛원자력본부부사택관리사무소

경북지사

500만 원 이상 경상북도개발공사
100만 원 이상 경산중앙교회 김천시청 대성목재 문경시청 최충원 포항시청

경남지사

1억 원 이상 경남스틸(주)
1,000만 원 이상 (주)건일기업 김정자 유진종
500만 원 이상 (주)국민은행
100만 원 이상 (주)금강전력 (주)동우토건 (주)두산종합목재 (주)부창전기 (주)성호특강
(주)신신사 경상남도김 권순도 김판수 남양산새마을금고
남해군청특별회비 노진松 대주회계법인경남지사 동서법무법인
로사플리워 박병준전기연구소 사천시의회 사천시청 삼성대학약국
성현복 세종내과영상의학과의원 신한산업(주) 심산서울병원 양용근치과의원
우림피티에스(주) 의령군청 이상은 임미화 정순경 주식회사동명전력
주식회사부광피앤티 주식회사송동훈 주식회사티에스지 지성이엔씨(주)
진주시청 창원자동차해체재활용(주)

제주지사

1,000만 원 이상 (주)도림아스터 (주)제스코마트 오순자 유성건설(주) 제주농협
청솔봉사회
500만 원 이상 변명호 제주마걸리 주식회사강용개발
100만 원 이상 (주)우리렌트카 035-양문길 김호진 대한불교조계종삼광사
동홍동적십자봉사회 모이세해장국 선림사 성산일출봉농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성원스님권오종 소방발전협의회 아키안
안혜주 양창홍 양호진골프 정영진 정혜사신도회 한라산국청사



신규 후원 회원 현황

대한적십자사 후원 프로그램

- 신규로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QR코드를 통해 자신에 맞는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

온/라/인으로 RedCross 만나기

종이 소식지를 온라인 소식지로 만나보세요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적십자 콜센터



1577-8179 (유료)

QR 코드



온라인 소식지 신청

01

<RedCross> 웹진으로 보기!

<RedCross> 소식지가 웹진으로도
발행됩니다. 소식지를 웹진으로 구독하는
경우 연간 제작비와 발송비가 절감되어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02

회원정보 최신화하기!!

적십자의 현장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회원정보를
최신화해주세요. 우편물 반송이 줄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03

대표 주소지 설정!!!

같은 주소로 여러 권의 소식지를
받으시나요? 한 주소당 한 권의 소식지를
받아보며 더 많은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RedCross>는 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2024년 <RedCross> 여름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 중 초첨을 통해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2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RedCross>와 언제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dCross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2024년 RedCross 여름호 독자 의견

김승인 경기도 수원시

글로벌 인도주의 위기를 다룬 기사가 와 닿았습니다. 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등 생각이 많아집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도 위기이지만 국가 간, 사람 간 생기는 갈등으로 인도주의가 위협 받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박민우 인천시 남동구

사할린 동포와 원폭 피해자의 지원 사업 소식을 잘 봤습니다. 해방 후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역사의 뒤판길에서 고통받는 우리 동포와 후손들이 많습니다. 적십자의 지원을 통해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위로와 따뜻한 마음들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한서영 대구시 달성군

‘생명을 살린 레드크로스 히어로’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남다른 용기와 기지를 발휘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RCY 회원, 안전교육 강사님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어요. 저도 언젠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용기 있게 나서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소영 경기도 수원시

김경일 교수님의 ‘소통의 기술’이 유익했습니다. 칭찬은 누군가의 인생도 변화시킨다는데 그동안 전 칭찬에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칭찬도 많이 해보려고요. 소식지에 바라는 게 있다면 봉사활동 소식, 적십자 공모전 등 앞으로 진행되는 활동 등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경용 전주시 완산구

대한적십자사 정기후원에 참여하면서 적십자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도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지원을 받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들어주시면 기부자들에게 나눔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학 경상남도 창원시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는 기사를 보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인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주 들었던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라는 환경표어가 적십자 공모전에서 선정됐더군요. 다시 한번 이 표어를 외치면서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나부터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적십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나눔에 앞장선 여러분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이메일(webmaster@redcross.or.kr)로 보내주세요.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간다. 기술이 끌지 않는 곳까지

누구보다 먼저 진심의 힘으로
생명을 구하는 곳 어디든



후원 참여

